

‘660원 코인 100원에’… 가상자산 투자 유도 사기 주의보

공정위 피해보상 민원사례 제시
속칭 ‘주식리딩방’ 전문성 없어
카톡·문자 등으로 소비자 현혹

2개월간 피해 상담 114건 달해
불법업체 의심될 땐 경찰 신고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줄겠다고 지속 연락을 시도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 연락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제공했다.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은행·상호저축은행)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

*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20일)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신탁기간을 자동 연장

가입을 유도한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의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

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속칭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나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에 달한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

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불법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산재 노동자 1493명 “권리 구제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작년 1만건 접수
강순희 “노동복지 허브역할 만전”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493명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된 1만107건 중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총 1493명(14.7%)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 소송 제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산재 여부를 심의한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면 심사를 통해 바로 잡는 방식이다. 법원 소송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만, 위원회를 거치면 60일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 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농협경제지주

고품질 국산 배 최대 40% 할인

배 소비 촉진을 위한 최대 40%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농협경제지주는 3월 20일~4월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배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배 생산량 증가와 내수시장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몰과 하나로마트를 통해 농협이 엄선한 고품질 국산 배를 특별할인가격에 선보인다.

농협몰에서는 3월20일~4월2일까지 3kg, 5kg 등 배 패키지 상품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3월30일~4월12일까지 소포장 배(4입봉, 3kg 박스)를 최대 30% 할인한다.

/세종=한용수기자

68만여 대학생들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

농식품부, 서울대 등 41개교 선정

서울대 등 41개교 68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목표 지원 인원 68만4867명)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 아침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렸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크게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의견도 91.8%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aT, 베트남 대형 B2B 시장진출 확대

MM 메가마켓 호치민 본점 개막식
농림축산식품부와 판촉 행사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베트남 대형 B2B(기업간거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7일 현지 창고형 대형유통업체 ‘MM 메가마켓’과 함께 ‘한국의 맛’ 판촉 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aT는 17일 호치민 본점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하노이, 하이퐁, 다낭 등 8개 도시 12개 매장에서 딸기, 포도, 버섯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김치, 쌀 음료 등 60여 종의 우수 K-푸드를 집중 홍보하고 판촉한다.

aT는 개막식에 앞서 16일 메가마켓 호치민 본점으로 현지 외식·호텔업계와 식품 판매상 등 대형 B2B 고객들을 초청, 현지인 셰프가 한국의 된장, 사과식초, 소주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소스

를 활용해 요리를 선보이는 쿠킹쇼를 개최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딸기, 김밥, 떡볶이, 김치, 음료 등 다양한 K-푸드를 시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MM 메가마켓’은 베트남 전역에 총 21개의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현지 B2B 식품 유통의 선도 기업이다. 호텔, 레스토랑 등 대형 식자재 수요처는 물론 중소 유통매장, 지역상인 등 도매로 식품을 구매하는 전문고객 비율이 70%에 달한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은 경제 발전과 함께 고품질 식재료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메가마켓과의 협력을 계기로 베트남 대형 B2B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정 “M&A 시정방안 자율 마련 제도화”

공정위 제1목적, 공정 경쟁 기반 형성
훼손 않는 범위서 인수합병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인수합병(M&A)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정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